

【특집】

앓의 의지, 욕망, 쾌락 :

계몽주의 주요 텍스트에 나타난 *libido sciendi* 개념

이 영 목*

【주제분류】 18세기 프랑스 문학, 계몽주의

【주요어】 리비도 스키엔디, 계몽주의 문학, 계몽주의 철학, 디드로, 볼테르, 라메트리, 18세기 프랑스 유물론

【요약문】 *Libido sciendi* 개념은 전통 기독교 사회에서 원죄의 흔적으로 간주되어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의 주요 사상가 및 문필가들의 저작에서 이 개념의 복권을 목격할 수 있다. 본고는 이 개념이 특히 텍스트의 서두에 등장하는 계몽주의의 몇몇 대표적 저작을 읽으면서, 첫째로 이 개념이 각 텍스트에서, 그리고 그 서두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둘째로 사상가 및 텍스트에 따라 이 개념이 어떻게 다양한 변주를 겪는지 살펴보고, 셋째로 이를 계몽주의라는 넓은 사상적 맥락 안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검토를 통해 우리는 계몽주의 철학과 문학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앓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근본적 변화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의혹과 금기의 대상에서 인간의 정당한 욕망의 대상으로, 나아가서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의 원천으로 앓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계몽주의의 핵심적 업적을 볼 수 있다.

*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조교수

I. 서 론

이 세상 모든 것은 육체의 탐욕, 또는 눈의 탐욕, 또는 삶의 자만이 다. 이 세 불의 강이 적시는, 아니 불태우는 저주의 땅은 불행하여라!

Tout ce qui est au monde est concupiscence de la chair, ou concupiscence des yeux, ou orgueil de la vie (I Joan. 2, 16), *libido sentiendi*, *libido sciendi*, *libido dominandi*. Malheureuse la terre de malédiction que ces trois fleuves de feu embrasent plutôt qu'ils n'arrosent !¹⁾

파스칼의 글에서 보듯이, 교부들 *pères de l'église*, 특히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삶의 욕망” 또는 “눈의 탐욕”은 다른 두 탐욕과 함께 원죄로 타락한 인간의 저주받은 본성을 증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최악시, 금기시 되었다. 18세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예수회가 발간한 『트레부 사전』²⁾과 같은 ‘정통적 orthodoxe’ 저작에서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훨씬 진보적인 달랑베르와 디드로의 『백과전서』의 “Concupiscence” 항목³⁾에서도 “삶의 욕망”에 대한 유사한 단죄는 계속 발견된다. 반면, 계몽주의의 주요 사상가 및 문필가들의 텍스트에서 *libido sciendi* 개념이 그다지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libido sciendi* 개념이 특히 텍스트의 서두에 등장하는 몇몇 주요 작품을 읽어, 첫째로 이 개념이 각 텍스트에서, 그리고 그 서두에

1) Pascal, *Pensées*, éd. Ph. Sellier, Bordas, 1991, p. 460.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2) *Dictionnaire universel françois et latin, vulgairement appelé Dictionnaire de Trévoux*, 6e éd. 1771, t. II, p. 777.

3)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1753, t. III, p. 832; “Concupiscence” 항목 참조. 이 항목은 (G)라는 서명이 붙어있다. 즉, 매우 전통적인 관점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말레 사제 abbé Mallet가 집필한 항목이다.

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둘째로 사상이 및 텍스트에 따라 이 개념이 어떻게 다양한 변주를 겪는지 살펴보고, 셋째로 이를 계몽주의라는 넓은 사상적 맥락 안에서 파악하는 것을 이 글의 목표로 삼는다.

II. 볼테르

1. 『칸디드』와 “삶의 욕망”

어느 날 퀴네공드가 성 근처를 산책하다가, 사람들이 ‘부속 정원’이라 부르는 작은 숲 덩굴 사이에서 팡글로스 박사를 보았다. 박사는 퀴네공드의 어머니의 하녀인 아주 예쁘장하고 아주 말을 잘 듣는 작은 갈색머리 여인에게 실험생물학 강의를 하고 있었다. 퀴네공드 양은 학문에 대한 소질이 많았기 때문에,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 반복되는 실험을 관찰했다. 그녀는 박사의 충족 이유, 원인과 결과를 뚜렷이 보았고, 잔뜩 동요된 채, 깊은 생각에 잠겨, 학자가 되려는 욕망에 가득차서 돌아왔다. 그리고는 분명히 자신도 젊은 칸디드의 충족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칸디드도 자신의 충족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칸디드를 만났고, 얼굴을 붉혔다. 칸디드도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간간이 끊기는 목소리로 그에게 인사를 했고, 칸디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다음 날 점심 식사가 끝나고 식탁을 떠나다가 퀴네공드와 칸디드는 병풍 뒤에서 마주쳤다. 퀴네공드가 손수건을 떨어뜨렸고, 칸디드가 그것을 주웠다. 그녀는 순진하게 그의 손을 잡았고, 그는 순진하게 아가씨의 손에 입을 맞췄는데, 그 입맞춤은 정말 생기와 감수성과 우아함으로 넘쳤다. 그들의 입은 서로를 찾았고, 눈은 불타올랐으며, 무릎은 떨렸고, 손을 길을 잃고 헤맸다. 튠데르텐트롱크 남작님께서 병풍 곁을 지나다가, 이 원인과 이 결과를 목격하고, 엉덩이에 발길질을 해서 칸디드를 성에서 쫓아냈다. 퀴네공드는 기절했다. 의식을 되찾자마자 그녀는 남작부인마담께 따귀를 맞았다. 그리고 가능한 성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성에서 모든 것이 비탄에 잠겼다.

Un jour Cunégonde en se promenant auprès du château, dans le petit bois qu'on appelait *parc*, vit entre des broussailles le docteur Pangloss qui donnait une leçon de physique expérimentale à la femme de chambre de sa mère, petite brune très jolie et très docile.

Comme mademoiselle Cunégonde avait beaucoup de dispositions pour les sciences, elle observa, sans souffler, les expériences réitérées dont elle fut témoin; elle vit clairement la raison suffisante du docteur, les effets et les causes, et s'en retourna toute agitée, toute pensive, toute remplie du désir d'être savante; songeant qu'elle pourrait bien être la raison suffisante du jeune Candide, qui pouvait aussi être la sienne.

Elle rencontra Candide en revenant au château, et rougit; Candide rougit aussi; elle lui dit bonjour d'une voix entrecoupée, et Candide lui parla sans savoir ce qu'il disait. Le lendemain après le dîner, comme on sortait de table, Cunégonde et Candide se trouvèrent derrière un paravent; Cunégonde laissa tomber son mouchoir, Candide le ramassa, elle lui prit innocemment la main, le jeune homme baisa innocemment la main de la jeune demoiselle avec une vivacité, une sensibilité, une grâce toute particulière ; leurs bouches se rencontrèrent, leurs yeux s'enflammèrent, leur genoux tremblèrent, leurs mains s'égarèrent. Monsieur le baron de Thunder-ten-tronckh passa auprès du paravent, et voyant cette cause et cet effet, chassa Candide du château à grands coups de pied dans le derrière; Cunégonde s'évanouit; elle fut souffletée par madame la baronne dès qu'elle fut revenue à elle-même; et tout fut consterné dans le plus beau et le plus agréable des châteaux possibles.⁴⁾

논지 전개의 필요에서뿐만 아니라, 그저 책읽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도 길게 인용할 가치가 있는 이 텍스트는 프랑스는 물론 유럽 계몽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이자 문필가인 볼테르가 쓴 것으로, 18세기 ‘철학소설 contes philosophiques’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칸디드』의 제 1장 마지막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libido sciendi*의 프랑스어 직역인 “학자가 되려는 욕망 *désir d'être savante*”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 욕망이 실제로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며, 따라서 기존 도덕의 틀에서는 죄악시되어야 마땅한 욕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Voltaire, *Candide ou l'optimisme* (1759), ch. I, éd. B. Darbeau, Hatier, 2003, p. 9-10. 강조는 필자.

우선 이 개념의 사용이 매우 성서적인 구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창세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악마는 지식을 주는 자로 등장하며, 여인이 타락을 주도한다.⁵⁾ 지식 전수자의 이름인 “팡글로스”, 즉, ‘pan+gloss’가 모든 언어를 구사하는 자, 실체적 지식은 갖추지 못한 채 오직 말장난에 불과한 언어를 구사하는 자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미지의 측면에서 ‘gloss’의 혀가 뱀의 혀를 상기시킨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팡글로스는 몸 ‘전체 pan’가 하나의 ‘혀 gloss’에 불과한 뱀과 같은 존재다. 퀴네공드라는 인물의 묘사 역시 성서적 상징체계에 속한다. “때깔 좋고, 싱싱하고, 통통하며, 먹음직스럽다 *haute en couleur, fraîche, grasse, appétissante*”⁶⁾라는 묘사는 음식물, 특히 성서의 금지된 열매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퀴네공드는 자신이 유혹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금지된 과실이기도 하다.

우리는 퀴네공드의 명분과 실제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 이미 언급했다. “삶의 욕망”을 내세우는 그녀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보다시피 “육체적 욕망”의 만족이다. 그러나 이 불일치 역시 기독교적 시각,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민중적 기독교적 시각을 반영한다. 사실 인류의 원죄와 타락에 관한 기독교 민중의 상상 속에서는 “삶의 욕망 *libido sciendi*”은 곧 “육체의 욕망 *libido sentiendi*”이자 궁극적으로는 “성교의 욕망 *libido copulandi*”이기 때문이다.⁷⁾ 또한 금기의 위반에 따른 결과, 또는 징벌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기독교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퀴네공드의 육체와 정신이 타락의 모든 결과(강간, 칼에 찔림, 매춘 등)를 겪고 그 흔적을 간직⁸⁾하는데 반해, 칸디

5) Nicole Jacques-Chaquin, 《La passion des sciences interdites》 in *Curiosité et Libido sciendi de la Renaissance aux Lumières*, ENS Edition, 1998, t. I, p, 76.

6) *Candide*, p. 8.

7) Jean Emelina, 《La Bible et le sexe: aspects et problèmes. Quelques exemples au XVIIe siècle》, in Jacques Domenech et al. *Censure, autocensure et art d'écrire*, Editions complexe, 2004, p. 91.

8) 칸디드는 퀴네공드를 다시 만날 때, “꿈직함에 사로잡혀 세 걸음 뒤

드의 육체와 정신은 ‘상대적으로’ 온전히 보존된다.

그러나 그것이 칸디드의 육체와 정신에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알려는 욕망”이라는 금기의 위반과 그 결과인 추방이 주인공 칸디드가 삶과 세계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탐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⁹⁾ 그 기나긴 탐구의 여정을 마치고 칸디드는 팡글로스로 대표되는 선입견으로 가득 찬 채 주입받은 체계를 추종하는 정신(*esprit de système*)에서 순진하지만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실천적 결론(“우리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을 도출할 줄 아는 성숙한 정신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바로 이 실천적 결론에서 팡글로스와 칸디드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결론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제가 아는 또 한 가지는—칸디드가 말했다—우리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는 거죠.

당신 말이 맞아요—팡글로스가 말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에덴동산에 놓인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서니까요. 그건 인간이 쉬라고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죠.

—Je sais aussi, dit Candide, qu'il faut cultiver notre jardin.

—Vous avez raison, dit Pangloss; car quand l'homme fut mis dans le jardin d'Eden, il y faut mis *ut operaretur eum*, pour qu'il travaillât; ce qui prouve que l'homme n'est pas né pour le repos.¹⁰⁾

걸음질” 친다. Ch. XXIX, “Le tendre amant Candide, en voyant sa belle Cunégonde rembrunie, les yeux éraillés, la gorge sèche, les joues ridées, les bras rouges et écaillés, recula trois pas saisi d'horreur, et avança ensuite par bon procédé.” Ed. cit., p. 120-121.

- 9) 프랑스 계몽주의 초기를 대표하는 소설인 몽테스키외의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도 주인공의 여정은, 역시 작품의 첫 번째 편지에서, 바로 “알려는 욕망”에 의해 설명된다. “Rica et moi sommes peut-être les premiers, parmi les Persans, que l'envie de savoir ait fait sortir de leur pays, et qui aient renoncé aux douceurs d'une vie tranquille, pour aller chercher laborieusement la sagesse.” Montesquieu, *Lettres Persanes*(1721), éd. P. Vernière, Bordas, 1992, p. 12.

창세기 2장 15절을 인용하는 팡글로스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아직 에덴동산을 벗어나지 않았다. 텍스트에서 그의 마지막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여전히 “가능한 세계 중에서 최선의 세계 le meilleur des mondes possibles”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는 칸디드의 결론은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창세기, 4-17)는 성경 구절과 더 가깝다. 팡글로스의 관점이 낙원에서의 추방을 부정하는 악마의 관점인데 반해, 칸디드의 관점은 인간은 낙원에서 영원히 쫓겨났으며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인식의 표현, 즉 인간의 관점을 대변한다.

여기서 *libido sciendi* 개념이 『칸디드』의 철학적 목적 중 하나로 널리 간주되는 라이프니츠 철학 비판, 보다 넓게는 당시 속류 라이프니츠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과 갖는 관련을 볼 수 있다. 정통 기독교 사상에서 ‘호기심’을 전적으로 죄악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이 “신을 잃어버린 증거이기도 하지만, 신에 대한 향수 *nostalgie*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따라서 신에 대한 인식으로 이끄는 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¹¹⁾ 팡글로스는 라이프니츠의 저작의 제목이기도 한 ‘신의론 *théodicée*’의 ‘나쁜’ 전형이다. 신의 섭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정당할 수 있지만, 그 진리를 얻었다는 자만은 나쁜 *libido sciendi*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볼테르뿐만 아니라, 18세기 “철학 소설”의 대표인 이 작품에서 *libido sciendi* 개념은 속류 라이프니츠주의의 비판이라는 작품의 철학적 차원에서, 그리고 주인공의 사상적 여정을 촉발한다는 서사적 차원에서 이처럼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10) *Ibid.*, ch. XXX, p. 126-127.

11) Nicole Jacques-Chaquin, «La curiosité, ou les espaces du savoir» in *Curiosité et Libido sciendi de la Renaissance aux Lumières*, ENS Edition, 1998, t. I, p, 16.

2. 『앵제뇌』

앵제뇌를 침실로 데려다주고 나서, 케르카봉 양과 생티브 양은 휴론 사람은 어떻게 자는지 알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커다란 자물쇠 구멍으로 들여다보았다. 두 여인은 그가 마룻바닥에 침대 덮개를 깔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세로 쉬고 있는 것을 보았다.

Quand on eut reconduit l'Ingénu dans sa chambre, mademoiselle de Kerkabon et son amie mademoiselle de Saint-Yves ne purent se tenir de regarder par le trou d'une large serrure pour voir comment dormait un Huron. Elles virent qu'il avait étendu la couverture du lit sur le plancher, et qu'il reposait dans la plus belle attitude du monde.¹²⁾

이 텍스트는 볼테르의 소설 중 형식면에서나 내용상으로도 가장 완성된 작품으로 꼽히는 『앵제뇌』 제1장의 마지막 부분이다. 『칸디드』의 제1장이 “앓의 욕망”이라는 개념을 제기하며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의 제1장 역시 “눈의 탐욕 *concupiscence des yeux*”을 형상화하면서 끝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 “앓의 욕망”의 주체가 여성이며, 그 욕망이 금지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칸디드』에서 “앓의 욕망”과 충족, 그리고 그 결과가 작품의 서사적 전개에서 필수불가결한데 반해, 이 작품에서 이 장면이 서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동일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테마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듯이 “눈의 탐욕”은 다시 한 번 작품에서 형상화된다.

두 여인은 랑스라는 작은 강가의 버드나무와 갈대를 따라 슬프게 거닐고 있었다. 그때 강물 한 가운데에서 가슴에 두 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찌고 있는 크고 상당히 흰 사람 모습을 보았다. 두 여인은 큰 소리를 지르고 몸을 돌렸다. 그러나 곧 호기심이 다른 모든 생각들을 제쳤

12) Voltaire, *L'Ingénu*(1767), ch. I, éd. M.-H. Prat, *Micromégas / L'Ingénu*, Bordas, 2003, p. 66.

기 때문에 조용히 갈대숲 사이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남에게 들키지 않으리라는 자신이 생기자, 문제가 되는 대상이 뭔지 보기를 원했다.

Elles se promenaient tristement le long des saules et des roseaux qui bordent la petite rivière de Rance, lorsqu'elles aperçurent au milieu de la rivière une grande figure assez blanche, les deux mains croisées sur la poitrine. Elles jetèrent un grand cri et se détournèrent. Mais, la curiosité l'emportant bientôt sur toute autre considération, elles se coulèrent doucement entre les roseaux; et quand elles furent bien sûres de n'être point vues, elles voulurent voir de quoi il s'agissait.¹³⁾

제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눈의 탐욕”은 *libido sciendi*의 다른 이름인 “호기심 *curiosité*”이란 단어로 표현된다. 그런데 ‘호기심’은 작품의 주인공인 앵제뉘를 규정하는 특성 중 하나다. 이미 제1장에서 주인공이 프랑스로 오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젊은이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호기심이 많으며, 프랑스 해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으며, 이제 왔으니 돌아갈 차례라는 것이었다.

Le jeune homme leur répondit qu'il n'en savait rien, qu'il était curieux, qu'il avait voulu voir comment les côtes de France étaient faites, qu'il était venu, et allait s'en retourner.¹⁴⁾

무지-호기심-지식, 또는 결핍-욕망-충족으로 연결되는 이 움직임은 작품 전체에서 주인공의 정신적 변화를 축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호기심’과 ‘용기’라는 두 주요 특성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 물질 모르는 젊은이¹⁵⁾가 여러 역경을 겪은 뒤, 계몽시대의 이상적 인간형이라 할 수 있는 ‘군인 철학자’¹⁶⁾로 변모하는 과정을 이 작품은 보여

13) *Ibid.*, ch. III, p. 74.

14) *Ibid.*, ch. I, p. 60.

15) “[...] la curiosité et le courage le précipitent [...]” *Ibid.*, ch. VII, p. 87.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호기심’이 바로 볼테르의 두 소설의 주인공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캉디드의 여정은, 비록 ‘철학적’이라 불릴 수 있지만,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호기심보다는 퀴네공드의 호기심의 희생양이었으며,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반면, 앙제뉴의 지적 탐구는 바스티유에서 장세니스트 고르동 Gordon과의 토론에서 보듯이 훨씬 더 적극적이다.

두 소설의 여주인공의 비교 역시 두 작품의 차이를 잘 드러내준다. 『캉디드』에서 퀴네공드의 ‘잘못된’ 호기심은, 마치 이신론에서 우주의 생성변화를 설명하는 최초의 운동처럼, 작품의 모든 서사적 전개를 가능케 하는 최초의 움직임으로 작동하지만 거기서 끝이 난다. 툰데르텐트롱크 성에서 쫓겨난 이후 작품의 끝까지 퀴네공드는 어떤 호기심도 보여주지 못한다. 반면, 캉디드와 비교할 때 앙제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철학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생티브 양도 퀴네공드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호기심의 결과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받아들인 치욕을 겪은 뒤의 생티브 양을 작가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제 그 여인은 시골에서 받은 교육 때문에 정신이 편협해진 단순한 어린 아이가 아니었다. 사랑과 불행이 그녀를 교육시켰다.

Ce n'était plus cette fille simple dont une éducation provinciale avait rétréci les idées. L'amour et le malheur l'avaient formée.¹⁶⁾

생티브 양의 운명에 대한 태도는 문자 그대로 스토아주의적이며, 그의 죽음은 『페르시아인의 편지』의 여주인공 록산느의 죽음 못지않게 비극하며 비극적인 ‘스토아주의적 자살’이다.

생티브와 퀴네공드의 비교는 그러나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도

16) “[...] à la fois un guerrier et un philosophe intrépide [...]”
Ibid., ch. XX, p. 158.

17) *Ibid.*, ch. XVIII, p. 137-138.

제기한다. 금지된 것을 알려는 욕망에는 언제나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주로 여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것은 좋은 호기심과 나쁜 호기심의 구분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이 더 적극적이며, 더 단죄되어야 마땅한—그 대상이 어찌면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케르카봉 양은 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지된 것에 대한 삶의 욕망으로서의 *libido sciendi* 개념은 볼테르의 가장 유명한 두 편의 ‘철학소설’의 첫 번째 장에서 공통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은 두 ‘철학소설’에서 형상화하는 진리 추구의 전체조건으로서 서사전개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작품 주인공들의, 특히 여주인공들의 삶의 여정이 보여주듯이 이 욕망의 실현은 일종의 징벌처럼 대가를 요구한다. 어찌면 이는 볼테르 사상에 남아있는 기독교적 사고방식의 잔재가 아닐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대에 가장 급진적인 사상가들에게로 시선을 돌려보아야 한다.

Ⅲ. 디드로와 라메트리

1. 『운명론자 자크』

일종의 농부 한 사람이 말 엉덩이에 젊은 여자를 태운 채 자크와 주인의 뒤를 따라오다가, 그들 말을 듣고는 말했다. “나리 말씀이 맞습니다.”

이 “나리” 칭호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어서, 자크나 주인이나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자크는 때를 가리지 못하고 입을 놀리는 상대에게 말했다. “웬 참견이야?”

—제 일에 참견하는 겁니다. 저는 외과의사인데요. 제가 보여드리죠.”

말 엉덩이에 타고 있던 여인이 말했다. “의사 양반, 우리 갈 길이나 가요. 보여드리길 원치 않는 이 두 나리들은 내버려 두고요.”

-아니오, 난 그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보여드릴 거요."

보여주려고 몸을 돌리다가 그는 여인을 밀어 균형을 잃게 만들었고, 그녀는 발 한 쪽이 옷자락에 낀 채 치마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땅에 떨어졌다. 자크가 내려서 그 가엾은 여인의 발을 빼주고 치마를 내려주었다. 사실 치마를 먼저 내려주었는지 발을 먼저 빼주었는지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비명 소리로 판단해보건대, 그 여인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그러자 자크의 주인이 외과의사에게 말하기를 "이런 게 바로 보여준다는 거지." 외과의사가 말하기를, "이런 게 바로 보여주기 싫어한다는 거죠."

Une espèce de paysan qui les suivait avec une fille qu'il portait en croupe et qui les avait écoutés, prit la parole et dit: «monsieur a raison...»

On ne savait à qui ce monsieur était adressé, mais il fut mal pris par Jacques et par son maître ; et Jacques dit à cet interlocuteur indiscret: «De quoi te mêles-tu?

-Je me mêle de mon métier; je suis chirurgien à votre service, et je vais vous démontrer...»

La femme qu'il portait en croupe lui disait: «Monsieur le docteur, passons notre chemin et laissons ces messieurs qui n'aiment pas qu'on leur démontre.

-Non, lui répondait le chirurgien, je veux leur démontrer, et je leur démontrerai...»

Et tout en se retournant pour démontrer, il pousse sa compagne, lui fait perdre l'équilibre et la jette à terre, un pied pris dans la basque de son habit et les cotillons renversés sur sa tête. Jacques descend, dégage le pied de cette pauvre créature et lui rabaisse ses jupons. Je ne sais s'il commença par rabaisser les jupons ou par dégager le pied; mais à juger de l'état de cette femme par ses cris, elle s'était grièvement blessée. Et le maître de Jacques disait au chirurgien: «Voilà ce que c'est que de démontrer.» Et le chirurgien: «Voilà ce que c'est que de ne vouloir pas qu'on démontre!...»¹⁸⁾

18) Diderot, *Jacques le fataliste et son maître.*, éd., P. Chartier, Le Livre de Poche, 2000, p. 46-47. 『운명론자 자크』의 집필 연대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이 텍스트의 첫 번째 형태는 1778년에서 1780년까지 *Correspondances littéraires*에 14 차례 연재되었고, 이후에도 디드로는 죽기까지 계속 텍스트를 수정했다.

이 텍스트는 디드로의 『운명론자 자크와 그의 주인』의 앞부분에 위치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작품의 대략 서너 페이지 째에 해당하는 이 텍스트는, 전체적인 서두, 자크에 의한 사랑 이야기의 시작, ‘작가’의 엉뚱한 개입 이후에 위치하고, 작품 속 시간으로는 둘째 날에 해당하며, 이야기 속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읽어본 독자들이라면 여기서 ‘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단어인지 잘 알 것이다. 이 작품 자체의 많은 에피소드가 그렇지만, 이 ‘사건’ 역시 줄거리—이 작품에 줄거리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지만—의 전개와 필연적 연관이 없다. 한 마디로, 비록 엉뚱하고 비문학적인 상상이지만, 이 작품에서 이 에피소드를 삭제한다 해도, 작품의 서사 구조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서 소개한 볼테르의 두 텍스트를 읽은 독자라면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본다는 행위와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대상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이미 눈치 챘을 것이다. 이 텍스트를 자세히 분석한 바 있는 굴르모는 이 장면이 ‘관능소설 roman érotique’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¹⁹⁾ 그러나 『운명론자 자크』를 본질적으로 ‘관능 소설’이나 ‘포르노그라피 소설’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제목이 암시하듯이 일종의 철학적 소설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가 읽은 에피소드에서도, 볼테르의 텍스트와는 달리, 강조가 되는 것은 보려는 욕망이라기보다는 “보여주려는” 욕망이다. 여기서 “보여주다 démontrer”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시각의 지각행위를 가리키는 뜻에서 만큼이나, “논증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즉,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에서건 추상적 의미에서건 “보여주기”가 금지

19) Jean Marie Goulemot, *Ces livres qu'on ne lit que d'une main: Lectures et lecteurs de livres pornographiques au XVIIIe siècle*, Alinéa, 1991, p. 60.

되어 있는 대상과 그 금지를 어기고 “보여주는” 행위인 것이다.

계몽주의 시대에 포르노그라피와 철학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한편으로는, 적어도 당대의 서적 산업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철학”이란 용어가 불법적으로 생산, 공급되는 문헌 전체를 일컫는 용어, “금지된 모든 것을 지칭하기 위한 관용적 표현”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²⁰⁾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양자가 맺고 있는 본질적 관계다.

타락의 효과가 계몽철학과 포르노그라피 문학을 연결시킨다. 왜냐하면 양자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유혹’이라는 동일한 무기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포르노그라피 글쓰기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의한 감각의 유혹은 철학이 아주 뛰어난 기교로 구사하는 글쓰기에 의한 유혹과 동일하다.

Un effet corrupteur unit philosophie des Lumières et littérature pornographique, car une même arme sert leurs fins: la séduction. La séduction des sens par l'illusion de l'écriture pornographique rejoint la séduction par l'écriture que met en place la philosophie avec un art consommé.²¹⁾

이러한 계몽사상과 포르노그라피 문학의 성공적인 결합의 대표적 인 예는 아마도 『철학자 테레즈』일 것이다.²²⁾ 하지만 디드로 역시 포르노그라피와 계몽사상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용한 대표적 작가다. 디드로가 문필생활을 시작하고 최초로 발표한 소설, 『수다쟁이 보석 *Les Bijoux indiscrets*』(1746)은 여성 성기의 완곡한 표

20) R. Darnton, *Edition et sédition. L'univers de la littérature clandestine au XVIIIe siècle*, Gallimard, 1991, p. 12. “Par «philosophie» les hommes du livre sous l'Ancien Régime n'entendent pas les Lumières, mais plutôt un secteur crucial de la librairie du XVIIIe siècle, celui de l'illicite, de l'interdit, du taboo.”

21) Goulemot, *op. cit.*, p. 19.

22) 이 작품에 관해서는 즐고,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 소설: 『철학자 테레즈』』, 『프랑스어문교육』 제17집, 2004, p. 453-472.

현인 “보석”들의 통제할 수 없는 수다들과 당시 초기 계몽사상의 주된 테마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결합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디드로의 초기 작품인 이 『수다쟁이 보석』과 위에서 인용한 에피소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에 주목할 수 있다. 그것은 “indiscret”라는 형용사다. 망고굴의 “보석들”이 “indiscrets” 하듯이 우리 주인공들의 뒤를 따라오던 외과의사도 “indiscret”하다. 즉 그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입을 놀려댄다. “보석들”과 외과의사 사이의 공통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그들은 둘 다 금지된 대상의 베일을 벗길 뿐만 아니라, 대상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계속한다. 이 점에서 이들은 샤를 니콜라 코셡 Charles-Nicolas Cochin이 1765년 <살롱>에 그 원본을 발표하고 1772년 판화로 출판되어 『백과전서』 구독자들에게 사후 배포된 『백과전서』의 「표제 그림 Frontispice」에서 ‘진리’의 베일을 단호한 표정으로 억지로 벗겨내는²³⁾ ‘이성’과 공통점을 보인다.²⁴⁾ 『백과전서』의 「표제 그림」이 계몽주의적 진리와 이성의 관계를 형상화하듯이, 『운명론자 자크』의 이 에피소드는 작품에서 앞으로 전개될 사상적 탐구를 축약한 형상화, 즉 알레고리라고 볼 수 있다.

2. 『라모의 조카』

날씨가 좋은 나쁜건 저녁 다섯 시 경에 팔레투아얄에 산책하러 가는 것이 내 습관이다. 다르장송 벤치에 항상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있는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내 자신과 정치, 사랑, 예술, 철학에 관해 이야기한다. 나는 내 정신을 자기 자유에 온통 맡겨둔다. 나는 내 정신이, 착한 것이건 어리석은 것이건 떠오르는 생각을 따르게 내버려둔다. 마치 푸아 산책로에서 우리 방탕한 젊은이들이 웃는 얼굴에 눈빛은 생기고 들창코의 출씩대는 한 창녀를 따라가다가 그 여자를 내버려 두고 다른 여자를 쫓아가듯이, 그래서 모든 여인들에게 집적대지만 어느 여

23) 주지하다시피, 베일을 벗겨낸다는 것이 ‘dévoiler’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다.

24) 이 그림은 <http://www.mapageweb.umontreal.ca/melancon/frontispice.html> 등 인터넷 여러 곳에서 ‘fontispice de l’*Encyclopédie*’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인에게도 집착하지 않듯이. 내 생각들은 내 논다니들이다.

Qu'il fasse beau, qu'il fasse laid, c'est mon habitude d'aller sur les cinq heures du soir me promener au Palais Royal. C'est moi qu'on voit toujours seul, rêvant sur le banc d'Argenson. Je m'entretiens avec moi-même de politique, d'amour, de goût ou de philosophie. J'abandonne mon esprit à tout son libertinage. Je le laisse maître de suivre la première idée sage ou folle qui se présente, comme on voit, dans l'allée de Foy, nos jeunes dissolus marcher sur les pas d'une courtisane à l'air éventé, au visage riant, à l'œil vif, au nez retroussé, quitter celle-ci pour une autre, les attaquant toutes et ne s'attachant à aucune. Mes pensées ce sont mes catins.²⁵⁾

이 텍스트 역시 디드로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라모의 조카』의 맨 앞부분에 위치한다. 무엇보다도 날씨에 관한 언급으로 텍스트가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둘째로 그 언급이 날씨를 표현하는 관용적 어구와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자. 날씨에 관한 표현을 위해서는 대체로 ‘beau / mauvais’라는 대립되는 형용사가 사용되는 데 반해, 여기서는 ‘beau / laid’의 대립이 사용되었다. 이는 이 작품이 ‘진위’(vrai ou faux), 또는 ‘선악’(bon ou mauvais)의 기준이 아닌 ‘미추’(beau ou laid)의 기준 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 미추의 관점은 바로 뒤에서 이어지는 체스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너무 춥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화자는 레장스 카페로 피신하여, “체스를 두는 것을 보기를 즐긴다 je m'amuse à voir jouer aux échecs.”²⁶⁾ 이 짧은 구절은 삼중적으로 유희와 관계되어 있다. 첫째로, 대상으로서의 놀이인 체스가 있고, 그것을 즐기는 타자가 있으며, 즐거움을 보고 즐기는 내가 있다. 이처럼 이 서문은 『라모의 조

25) Diderot, *Le Neveu de Rameau*, éd. F. Chapiro, Larousse, 2005, p. 55. 이 작품의 집필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운명론자 자크』의 경우보다 더 어렵다. 대체로 디드로는 1761-1762년에 집필에 착수하여 1773-1774년에 전체적인 수정을 가했고, 1782년까지 부분적 수정을 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 *Ibid.*, p. 55-56.

카』라는 텍스트를 순수한 유희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만일 이 텍스트에서 정치(“politique”), 인간의 정념(“amour”), 예술(“goût”), 철학(“philosophie”)이 다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순전히 유희의 차원에서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정신의 자유 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디드로가 사용한 “자유 행위 libertinage”라는 단어는 18세기 당시 그 용어가 가진 모든 의미에서 사용된다.²⁷⁾ 그것은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인 동시에, 기존 종교를 비롯한 전통 권위에서의 자유이며, 끝으로는 기존 도덕의 관점에서 볼 때 단죄해 마땅한 도덕적 일탈이다. 디드로에게서 사유는 그의 섹스 파트너들인 것이다. 그러나 사유 행위와 성행위 사이의 일치를 주장한 사람은 디드로만이 아니다. “삶의 욕망”에서 “삶의 쾌락”으로의 전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드로와 함께 18세기 최고의 유물론자였던 라메트리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3. 라메트리의 『인간-기계』

감각의 쾌락은, 그것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또 사랑을 받는다 해도, 단 한 번의 절정 밖에 없으며, 그 절정은 곧 쾌락의 무덤이 된다. 완전한 쾌감이 감각의 쾌락을 돌이킬 수 없이 죽이지는 않는다 해도, 되

27)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6e édition, 1832-1835.

LIBERTINAGE. s. m. Déréglement dans les mœurs, dans la conduite. *Vivre dans le libertinage, dans un libertinage continuel. Donner dans le libertinage. Ce jeune homme est tombé dans un libertinage affreux.*

Il signifie aussi, Licence des opinions en matière de religion. *Il fait profession de libertinage. Cela sent le libertinage.* Dans ce sens, il a vieilli.

Libertinage d'esprit, d'imagination, Légèreté, inconstance dans les idées, qui fait qu'on passe d'un objet à un autre, sans s'arrêter à aucun. *Cet écrivain s'abandonne à un libertinage d'imagination qui l'entraîne dans beaucoup d'écarts. Il se laisse aller à un libertinage d'esprit qui ne lui permet d'approfondir aucun sujet.*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적 쾌감의 밀전은 얼마나 다른지! 진리에 다가가면 갈수록 진리는 더욱 매력적이 된다. 그 오르가즘은 욕망을 더욱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느끼려고만 하면 느낄 수 있다. 그 오르가즘은 오래 지속되면서도 번개가 꿰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 정신이 육체보다 우월한 만큼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이 과연 놀랄만한 일인가? 그러니 이제 더 찾지 말자. 어떤 물리칠 수 없는 마법에 의해,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가슴이 순식간에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동하여 신들이나 맞볼 수 있는 쾌감들을 맛보게 되는지.

La volupté des sens, quelque aimable et chérie qu'elle soit, [...] n'a qu'une seule jouissance qui est son tombeau. Si le plaisir parfait ne la tue point sans retour, il lui faut un certain temps pour ressusciter. Que les ressources des plaisirs de l'esprit sont différentes! Plus on s'approche de la Vérité, plus on la trouve charmante. Non seulement sa jouissance augmente les désirs, mais on jouit ici, dès qu'on cherche à jouir. On jouit longtemps, et cependant plus vite que l'éclair ne parcourt. Faut-il s'étonner si la volupté de l'esprit est aussi supérieure à celle des sens, que l'esprit est au-dessus du corps? [...] Ne cherchons donc plus par quels invincibles charmes, un cœur que l'amour de la Vérité enflamme, se trouve tout à coup transporté, pour ainsi dire, dans un monde plus beau, où il goûte des plaisirs dignes des dieux.²⁸⁾

이 텍스트는 1746년 라메트리가 발표한 『인간-기계』의 본문 앞에 놓인 「괴팅겐 의학교수 할러 씨에게 A Monsieur Haller, professeur en médecine à Goettingue」라는 서간문의 두 번째 문단이다. “이것은 헌사가 아닙니다 Ce n'est point ici une dédicace”라는, 이 텍스트를 시작하는 도발적이고 모순적인 주장대로 이것이 ‘헌사’가 아니라면 그 존재이유는 무엇일까? 폴 로랑 아순은 할러와 라메트리의 관계에 주목한다. 라메트리와 할러는 둘 다 네덜란드의 레이덴에서 부르하버 Boerhaave에게서 사사했다. 말하자면 할러는 부르하버의 “정통 유심

28) La Mettrie, «A Monsieur Haller, professeur en médecine à Goettingue» in *L'Homme-machine*. éd. P.-L. Assoun, Folio, 1999, p. 135.

론적 사상”을 대변하는 제자라면 라메트리는 스승의 “유물론적 측면”을 계승, 발전시킨 제자이다. 즉, 이 ‘헌사’는 학파의 이단아가 정통적 후계자에게 던지는 도전장이다.²⁹⁾

그러나 이 상황적 설명이 텍스트의 존재이유를 모두 밝혀주지는 않는다. 이 글의 목적은 *libido sciendi* 자체의 정당화이자 당시로서는 가장 과감한 철학적 시도였던 자신의 작업 자체의 정당화이다. 앞서에서도 말했듯이 기독교에서 *libido sciendi*를 완전히 단죄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좀 더 고귀한 목적(진리의 추구, 자아·세계·신에 대한 인식)을 지향할 수 있다는 일종의 “알리바이” 때문이었다.³⁰⁾ 그러나 라메트리의 이 글에서 삶과 사유는 다른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 순수한 ‘삶의 쾌락의 향유’를 지향한다. 또한 삶의 쾌락은 그 쾌락의 주체의 복권을 의미한다.

라메트리와 디드로에게 있어서, *libido sciendi* 개념은 쾌락의 향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voluptas cognoscendi*로 전화하며, 또한 삶의 쾌락은 그 쾌락의 주체의 복권을 동반한다. 이과정을 통해 인간의 원죄의 흔적으로 여겨졌던 세 가지 탐욕, *voluptas*, *curiosita*, *superbia*가 금기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인간의 근본적 요구로 복권되며, 그 세 가지 요구 사이의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진다.

IV. 결 론

우리가 이 글에서 직, 간접적으로 언급한 텍스트들—볼테르의 『칸디드』와 『앵제뉴』, 디드로의 『운명론자 자크』와 『라모의 조카』, 몽테스키외의 『페르시아인의 편지』, 라메트리의 『인간 기계』—은 프랑스계몽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텍스트들로서, 라메트리의 텍스트만 제외

29) 자세한 사항은 Assoun의 note 3, *op. cit.*, p. 219-223 참조.

30) Jacques-Chaquin, «La curiosité, ou les espaces du savoir», *op. cit.*, p. 12.

하면 모두 중고등학생의 필독서로 손꼽히는 책들이다. 이 유명한 텍스트들에서, 그것도 그 텍스트들의 첫 번째 장이나 서두에, *libido sciendi* 개념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사실이다. 첫 번째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보듯이, 그 저자들은 자신의 지적 모험에 뛰어들기 전에, 그리고 독자들을 거기로 인도하기 전에, 그 모험을 기독교적 금기 앞에서 정당화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그 정당화는 바로 *libido sciendi* 개념의 복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복권은 작가의 사상적 기반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인다. 볼테르의 텍스트들에서와 달리 디드로의 텍스트에서 금기의 위반은 징벌을 동반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용한 『운명론자 자크』의 에피소드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수다쟁이 보석』의 여러 에피소드에서 보듯이, 오히려 반대로, 징벌이 있다면 그것은 그 금기를 어긴 자보다는 금기의 위반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가해진다.³¹⁾ 18세기 유토피론의 급진성은 바로 이 금기에 대해 취하는 거리, 또는 자유로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볼테르가 디드로나 라메트리보다 거의 한 세대 앞선 사람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볼테르의 텍스트는 라메트리의 텍스트나 디드로의 『수다쟁이 보석』보다 뒤에 집필된 작품이다. 시대에 따라 계몽주의의 대담함이 커진다고보다는 작가의 제일철학의 차이에서 대담함의 차이가 오는 것이 아닐까?

칸트는 계몽주의를 “앞의 용기 *Sapere aude*”로 정의한다. 그러나 어떤 단어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즉, ‘앞’과 그 결과(흔히 ‘계몽’주의)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라는 의지적 측면을 중시할 것인가에 따라 그 시대를 이해하는 관점은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앞’의 자본주의적 축적 및 사회적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전시대와 비교할 때 계몽주의의 새로움과 본질은, 또

31) 쓸데없는 수다를 막기 위해 “보석”에 재갈을 물린 여인들은 질식사 위험에 처하게 된다. Diderot, *Les Bijoux indiscrets*, ch. XIX, in *Œuvres romanesques*, éd. L. Perol, Garnier, 1981, p. 51.

는 그 근대성은, 오히려 앓에 대한 태도의 변화 즉, 금기시되던 대상이 욕망의 대상이 되고 앓이라는 행위가 쾌락 그 자체가 되는 변화에 있지 않을까? 앓이 의지의 차원(“volonté de savoir”)이나 의식적, 무의식적인 욕망의 차원(“désir ou envie de savoir”)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이 모든 지적, 정서적, 육체적 측면을 아우르는 “앓의 쾌락 volupté de savoir”으로 전화되는 과정이 계몽주의 정신이 걸은 가장 큰 여정 중 하나일 것이다.

참고문헌

- Diderot, *Jacques le fataliste et son maître.*, éd., P. Chartier, Le Livre de Poche, 2000.
- _____, *Le Neveu de Rameau*, éd. F. Chapiro, Larousse, 2005.
- _____, *Œuvres romanesques*, éd. L. Perol, Garnier, 1981.
- La Mettrie, *L'Homme-machine*. éd. P.-L. Assoun, Folio, 1999.
- Montesquieu, *Lettres Persanes*, éd. P. Vernière, Bordas, 1992.
- Pascal, *Pensées*, éd. Ph. Sellier, Bordas, 1991.
- Voltaire, *Candide ou l'optimisme*, éd. B. Darbeau, Hatier, 2003.
- _____, *L'Ingénu*, éd. M.-H. Prat, *Micromégas / L'Ingénu*, Bordas, 2003.
- Dictionnaire universel françois et latin, vulgairement appelé Dictionnaire de Trévoux*, 6e éd. 1771.
-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1750-1766.
- Darnton (Robert), *Edition et sédition. L'univers de la littérature clandestine au XVIIIe siècle*, Gallimard, 1991.
- Emelina (Jean), «La Bible et le sexe: aspects et problèmes. Quelques exemples au XVIIe siècle», in Jacques Domenech

(sous la direction de), *Censure, autocensure et art d'écrire*, Editions complexe, 2004.

Goulemot (Jean Marie), *Ces livres qu'on ne lit que d'une main: Lectures et lecteurs de livres pornographiques au XVIIIe siècle*, Alinéa, 1991.

Jacques-Chaquin (Nicole), «La curiosité, ou les espaces du savoir» in *Curiosité et Libido sciendi de la Renaissance aux Lumières*, ENS Edition, 1998.

_____, «La passion des sciences interdites» in *Ibid.*

Jacques-Chaquin (Nicole) et Houdard (Sophie), textes réunis par, *Curiosité et Libido sciendi de la Renaissance aux Lumières*, ENS Edition, 1998, 2 vol.

이영목,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 소설: 『철학자 테레즈』, 『프랑스어 문교육』 제17집, 2004.

ABSTRACT

The will, the desire, the pleasure of knowledge :
the notion of *libido sciendi* in the texts of French Enlightenment

Lee, Young-Mock

The *libido sciendi* had been considered in the traditional christian society as suspect and even reprehensible, for it derives from the original sin of human beings. In the literature and the philosophy of French Enlightenment, we can note however a process of rehabilitation of the notion.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role the notion assumes in the texts of main french philosophers of the eighteenth century, to observe its variations in their texts and to understand the notion in a larger context of the philosophy of Enlightenment.

At the end of this examination, we will see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nges enabled by the literature and the philosophy of French Enlightenment lies in the very change of attitude before the knowledge. No more an object of interdiction or of taboo, the desire of knowledge is fully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and a fundamental source of pleasure of human beings.

Keywords: *libido sciendi*, French Enlightenment, Materialism, Voltaire, Diderot, La Mettrie